

## 2.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폐정개혁운동

1894년 6월 하순, 백산봉기에 참여한 순천의 농민군 100여 명은 순창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다.<sup>1)</sup> 이들은 정부와 힘겨운 투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인 순천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백산봉기에 가담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 지 약 두 달 만의 귀향이었다.

당시 순천부사는 김갑규(金甲圭)였는데, 그는 이미 1892년 음력 6월부터 재임 중이었다.<sup>2)</sup> 이들이 백산의 봉기에 참여하기 직전, 그러니까 음력 1월 10일 고부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약 달포 만에 순천지역에도 농민항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순천부사 김갑규의 가혹한 탐학에 그 원인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1894년 음력 2월) 25일 순천부의 백성 수천 명이 부 동쪽에 모여서 난이 일어날 듯하였다. 부사 김갑규가 백성을 향하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애걸하자 백성들은 곧 흩어졌다. 갑규는 민영준의 매부로서 관직에 오른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이 도리어 민씨들보다 심하여 계사년(1883) 가뭄에 백성들은 겨우 원래의 세금이나 납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봄이 되어 갑규가 백성들에게서 또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토지 매결마다 쌀 일곱 말씩 거두어들였다. 백성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난이 일어날 뻔하였다.( 현역 오하기문』, 71쪽)

음력 2월 25일(양 3. 31.)에 수천 명의 농민들이 민영준의 매부인 순천부사 김갑규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봉기하려 하자, 김갑규가 직접 애걸함으로써 간신히 무마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김갑규는 마음대로 농민을 수탈하기 어려워졌거니와 통제하기도 쉽지 않았으리라 믿어진다. 그래서인지 김갑규는 음력 6월에 이임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새로이 부사가 오기까지 순천은 약 두 달간이나 수령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894년 음력 6월경 전남 동부지역의 농민군들은 대부분 귀향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지도자는 전북 금구(金溝) 출신의 김인배(金仁培)였다. 그는 김개남을 지지하는 인물로서 전라좌도의 핵심적인 농민군 지도자였다. 그가 순천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개 이 (순천)부는 바다에 인접한 좌도의 큰 도시이다. 작년(1894 : 필자) 음력 6월 이후 금구의 적괴 김인배당이 각처의 비도를 이끌고 와서 10만 명의 무리가 되었다. (김인배의 무리가) 와서 순천의 성 안에 웅거하고서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였다.( 통학란기록』상, 680쪽)

1) 『兩湖電記』, 『통학농민전쟁사료대계』6, 여강출판사, 1994, 148쪽.

2) 이수광, 『증평지』,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88, 66쪽.

김인배는 1894년 음력 6월 이후에 순천에 들어왔다. 앞서 언급한 바 있던 백산봉기에 참여한 순천의 농민군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온 셈이다. 순천부사는 공식 중인 데다 이미 농민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김인배가 인솔한 농민군은 손쉽게 순천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김인배의 영호도회소는 순천도호부의 읍성에 본부를 두고서 낙안군·광양현·좌수영(여수)을 관할하였는데, 현재의 순천·광양·여수·여천지역이 이곳에 해당된다. 아마도 고흥·보성·구례지역의 농민군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당시 영호도회소는 김개남의 영향 아래 전남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주요 구성원<sup>3)</sup>

직 책	성명(출신지)	비 고
영호대접주	김인배(金仁培 : 금구)	광양 효수(12. 7.)
영호수접주	유하덕(劉夏德 : 순천)	위와 같음(12. 8.)
영호도집강	정우형(鄭虞炯 : 순천 쌍암)	순천 포살(12. 6.)
	이우회(李友會 : 순천 쌍암)	좌수영 압송 효수(12. 11.)
성찰	권병택(權炳宅 : 순천)	좌수영 압송 포살(12. 12.)
순천 도성찰	손작란(孫作亂 : 순천)	장흥 고전산 체포(양 1895. 9.)
광양·순천 수접주	김학식(金鶴植)	광양읍 포살(12. 11.)
순천 서 면 접주	김영구(金永九)	좌수영 압송 효수(12. 12.)
별량면 접주	김영우(金永友)	위와 같음(12. 12.)
월등면 접주	남정일(南正日)	위와 같음(12. 12.)
동촌면 접주	정재철(鄭在哲)	장방수(長房囚)
성찰	장지규(鄭志圭)·황학연(黃學連)·위광석(魏光石)	위와 같음
송광면 성찰	김배옥(金培玉)	장방수
쌍암면 접사	이우회 아들	순천 타살
광양 봉강면 접주	박흥서(朴興西)	광양 포살(12. 7.)
인덕면 접주	성석하(成石河)·박소재(朴小才)·박치서(朴治西)	광양 포살(12. 8~9.)
사곡면 접주	한근협(韓君夾)·한진유(韓辰有)	광양 포살(12. 8·10.)
옥룡면 접주	서윤약(徐允若)·서형약(徐亨若)·이중례(李仲禮)·하중범(河宗凡)·서통보(徐通甫)	광양 포살(12. 8.)
월포면 접주	김명숙(金明淑)	광양 포살(12. 9.)
섬거역 도접주	김갑이(金甲伊)	섬거역 참수(12. 10.)
도집강	정홍섭(丁洪燮)	위와 같음
동몽	조백원(趙伯元)	섬거역 포살(12. 10.)
동외접 서기	오준기(吳準己 : 운봉)	순천 타살(12. 12.)
경상도 양산 접주	황두화(黃斗化)	위와 같음
광주 성찰	박현동(朴玄同)	위와 같음

비고 : 괘호 안은 사망날짜로 1894년 음력일임.

3) 이 표는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雜冊綴」,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21970; 『학사등록』54, 국사편찬위원회, 199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동부지역 농민군의 구심점으로 이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한 상태로 활동하였다.<sup>4)</sup>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호도회소는 대접주 김인배가 통솔하였고, 그 아래에 수접주 유하덕, 도집강 정우형·이우회, 성찰 권병택, 광양·순천 수접주 김학식 등이 상부 조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상층부는 대접주·수접주·도집강·성찰 등으로 편제되었으며, 하층부에는 면단위마다 접주·접사·성찰·동몽·서기 등이 있었다.<sup>5)</sup>

직책에 따른 임무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접주와 수접주·도집주 등이 해당 도회소나 접을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였을 것이며, 도집강은 해당 접의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믿어진다.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라좌우도 대도소의 도집강이 각 지역 도소나 도회소의 도집강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러한 사안은 곧 여러 읍·면단위의 접에 전달됨으로써 해당 집강들이 그것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각 지역의 집강들은 해당 접주와 상의하여 농민군 보유 무기와 장비의 파악, 농민군의 약탈과 토색 금지, 민소(民訴) 등을 해결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감영이나 도회소의 도집강에게 보고하였다.<sup>6)</sup> 이러한 집강의 활동은 지방관의 임무에 비교될 정도로 막강하였다.<sup>7)</sup> 한편, 접사는 접주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부접주에 해당하였으며, 성찰은 치안이나 경찰 임무, 동몽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심부름이나 호위를 주로 담당하였다.<sup>8)</sup>

영호도회소를 이끌었던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대접주 김인배(1870~1894)는 전북 금구(현 전북 김제군 봉남면 화봉리) 출신이다. 그는 김해 김씨로서 부인 김제(金堤) 조씨(趙氏) 사이에 아들 중성(鍾成)과 중철(鍾哲)을 둔 어엿한 가장이었다.<sup>9)</sup> 그는 일명 용배(龍培)로 불렸으며, 불과 스물네 살의 나이로 농민군 10대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sup>10)</sup> 그는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다가 1894년 백산봉기에 김덕명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김개남의 측근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전주화약 이후 전라좌도의 남동부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제외한 접주나 접사·성찰·동몽 등 주요 직책을 맡았던 영호도회소의 간부들은 대부분 전남 동부지역 출신들이었다. 예컨대, 광양의 옥룡면 접주인 서윤약·형약 형제는 운평리 상평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옥룡 출신의 변낙중(卞樂仲)과 이경도(李京嶋)는 동도괴수(東徒魁首)로 알려질 정도의 농민군 지도자였는데, 이경도의 부친은 옥룡면 면임을 역임하였다.<sup>11)</sup> 또한 순천의 진사 유재술(劉在述)이 농민군에 적극 가담하였다.<sup>12)</sup>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영호수접주인 유하덕(劉夏德)이나 1890년을 전후하여 광양에서 동학을 전파한 유수덕(劉壽德)과 관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학식을 갖춘 자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sup>13)</sup> 물론 일반 농민군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거나 신분이 낮았으리라 믿어진다. 당시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들을 열렬히 호응하였다. 심지어 농민군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던 황현조차도 다음과 같

4)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호남문화연구』23, 1995, 54~55쪽.

5) 김양식, 앞의 논문, 56쪽.

6) 노용필, 「東學農民軍의 執綱所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133, 1992, 103·117~119쪽.

7) 황현 저·김중익 역, 『현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129쪽.

8) 김양식, 「1894년 농민군 都所의 조직」, 『史學志』28, 1995, 374~375쪽.

9) 『釜海金氏京派統合譜』 丙一編, 1991, 881~882쪽.

10) 이이화, 『탈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00쪽.

11) 「光陽廉聞記」, 『학사등록』54, 국사편찬위원회, 1991, 89쪽.

12) 황현 저·김중익 역, 『현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28쪽.

13) 국사편찬위원회, 『추한일본공사관기록』6, 1991, 25쪽.

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관군)은 행군을 하게 되면 연도에서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였고, 점포를 망가뜨리고 상인의 물건을 겁탈하는가 하면, 마을로 가득 몰려가니 닭이나 개가 남아나는 게 없었기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를 갈면서도 겁이 나 피했다. ... 적(농민군 : 필자)은 관군의 소행과 반대로 하기에 힘써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게끔 명령을 내려 조금도 이를 어기지 않으면서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우며 행군하였다. 이때 관군이나 도적들 양 진영은 모두 양식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민간에서 먹을 것을 구하여 힘들게 옮겨와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적들의 진영에는 음식을 담은 광주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관군은 굶주린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 한역 오하기문, 79~80쪽)

민간에 대한 약탈은 관군이 주도한 반면, 농민군은 백성들의 폐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썼다. 그래서 농민군의 진영에는 백성들이 가져다 준 식량이 끊이지 않았다. 요컨대, 농민군은 자신들이 표방한 대로 보국안민적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민군의 안민적 활동으로 날이 갈수록 농민군 숫자는 늘어났다. 농민군에 한 번 들어오면 마치 별천지에 든 것처럼 여겼으며, 귀가하여 가래와 호미를 드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을 내키지 않아 할 정도였다.<sup>14)</sup>

한편, 영호도회소는 먼저 각 군현의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수령과 향리들이 도망하거나 공무를 집행하지 않아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기능마저 마비되었다. 이에 각 도소의 도집강과 도성찰, 각 면의 집강과 성찰 등을 중심으로 부랑배를 단속하거나, 다른 지역의 농민군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일을 막기도 하였다.<sup>15)</sup>

또한 폐정개혁을 수행함과 동시에 포교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귀천과 노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함으로써 사노비·역졸·무당·백정 등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다투어 입도하였다. 이처럼 농민군의 제반 활동은 광범한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14) 국사편찬위원회, 『한일본공사관기록』1, 1991, 55쪽.

15) 김양식, 「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호남문화연구』23, 1995, 60쪽.